

종합

전남도 '희망의 전화 129'
고통 받는 서민 지킴이로

보름새 '긴급구호' 39건 3천여만원 지원

순천시 장천동 김 씨의 지난 1월 교도소에서 나온 후 근근이 막
노동을 하며 여관방에서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럽게
건강이 나빠지는 바람에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김씨는 결국 끼니를
줄게 됐고, 이를 보다 못한 주위 사
람들이 전남도의 '희망의 전화
129'로 긴급지원을 요청했다. 김씨는
현장확인을 거쳐 '희망의 전화
129'로부터 생계비 25만 원과 주거
비 10만1천 원을 지원받아 급한 불
을 꺼냈다.
합평군 엄다면 또 다른 김 씨
도 지난 3월 갑작스런 화재로 세 식
구가 함께 살던 집이 불타버리는
피해를 입었다. '희망의 전화 129'
는 실의에 빠진 이들 가족에게 생
계비 56만3천원을 지원하고, 인근
마을회관에 거처를 마련해 줬다.
영광군 염산면 유 씨의 딸은 염전
에서 일할 노동자로 생활하던 중
갑작스런 손목 인대 파열 사고로
일을 계속 할 수 없게 됐지만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희망의 전화
129'로부터 생계비 25만 원을 지원
받았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화재, 폭력,
가장의 사망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진 이들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가 지난달 24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희망의 전화 129'
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
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10일까지 '희망
의 전화 129'를 통해 모두 131건의
지원요청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
데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지원 대
상으로 선정된 39건에 대해서는 1
개월간의 생계비와 주거비, 의료
비 등 모두 3천471만4천 원을 지원
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또
20건에 대해서는 민간 지원기관과
연결시켜 주거나 국민기초수급자
로 책정해 보호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덕수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발견한
이들은 누구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사·군 사회복지과에 긴급 지
원을 요청,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
했다.
/홍정기자redplane@kwangju.co.kr

감사원 "외환銀 부실 아니었다"

매각 당시 BIS 비율 재산정 결과 '8%대' 잠정 결론
수백억대 부실자산 중복 계산 정황... '잇선' 개입 조사

외환은행 '헐값 매각'을 감사중인
감사원은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재산정
한 결과 매각 당시 제시된 6.16%보
다 훨씬 높은 8%대 잠정 결론을 추
산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창영 감사원 홍보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BIS 비율 재산정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며 "감사원
자체 계산에서는 잠정적으로 8%대
중반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정 홍보관리관은 이어 "외환은행
에서 주장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
의 부실규모가 이중 계산된 점이 발
견됐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도 이
부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은 이번주 중 BIS 비율 최종 재산정
수치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감사원 재산정 BIS 비율이 최종적
으로 8%를 넘는 것으로 나오면 외환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문
스타에 매각한 근거가 근본적으로 부

되다는 높을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
했다.
정 홍보관리관은 "외환은행에서
산정한 BIS비율 6.16%에 대한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
의 부실규모가 이중 계산된 점이 발
견됐고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도 이
부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은 이번주 중 BIS 비율 최종 재산정
수치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
졌다.
감사원 재산정 BIS 비율이 최종적
으로 8%를 넘는 것으로 나오면 외환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문
스타에 매각한 근거가 근본적으로 부



'국민참여재판제도' 모의재판
내년부터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으로 참가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
시행을 앞두고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모의재판에서 일반시민과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다.
/연남뉴스

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

검찰, 현대오트넷·본택 합병과정 의혹수사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
인 대검 중앙수사부는 11일 오후 현
대오트넷이 올해 2월 본택을 합병하
는 과정에서 양쪽 주식의 가치를 산
정해 준 삼일회계법인을 압수수색했
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용산구 국제센터
빌딩 내 삼일회계법인 본사에 10일
오후 3~6시 수사관들을 보내 현대오
트넷의 본택 인수 당시 주가 산정 평
가 자료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분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 범위는 현
재 수사중인 사안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했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현대차가 인수한
한보철강 매각주주간사를 맡기도 한
국내 최대 회계법인으로 이번 압수수
색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의 경
영권 승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밝
힐 단서를 찾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과도한 무가지·경품제공
3개 신문사 지국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12일
독자들에게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 신문판매 고시를 위반한 4개
신문사의 31개 지국에 대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경고 등의 제재를 가했다.
서울사무소는 이들 지국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심각한 3개 신문사의 8
개 지국에 대해서는 모두 9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나머지 지국에는
시정명령과 경고 등의 조치를 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신문사별 지국
수는 중앙일보 5개(650만원), 동아일
보 2개(200만원), 조선일보 1개(100
만원)다. 시정명령을 받은 지국은 중
앙일보 4개, 동아일보 3개, 조선일보
2개이고 경고를 받은 지국은 중앙일
보 5개, 조선일보 5개, 동아일보 3개,
세계일보 1개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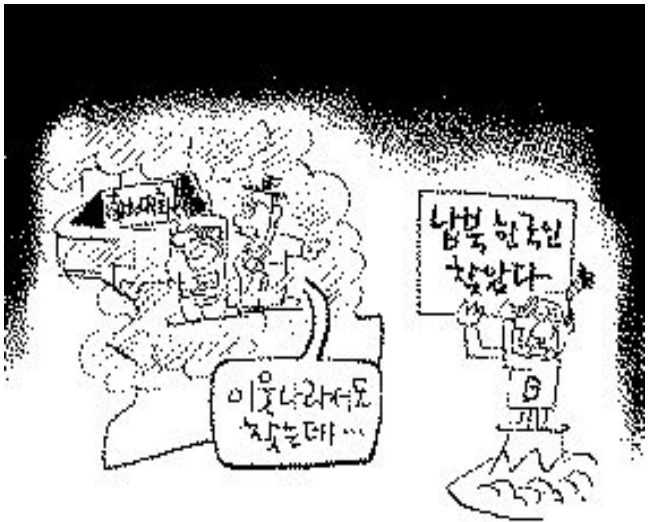
광주 외국인
총 6,732명 산다

광주에 사는 외국인은 총 6천732명
으로 광주 인구의 4.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시가 발
표한 '광주 거주 외국인 실태 조사' 결
과에 따르면 총 외국인 6천732명(남
자 3천829명·여자 2천903명) 중 조

선족(중국)이 1천44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중국인 1천371명, 미국 300명,
일본 293명, 대만 267명, 몽고 86명,
러시아 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선족(1천447명)의 경우는 여
자가 870명(60%)이나 되며, 이중 상
당수가 생계를 위해 중소기업체나
식당 등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됐다.
/최희정기자 chae@

빛의 만경

- 김중두



황사가 심해서 그랬다 쳐두자

광고접수안내
광주광역시 광안동 1333-3433
전화: 010-9977-9600
팩스: 010-9977-9500

전문건설업 양도·양수·공고
(주)에이스 대표이사 안병길
1. 양도·양수: 2006년 4월 13일
2. 양수공고: 2006년 4월 13일

건설업 양도·양수·공고
1. 양도·양수: 2006년 4월 13일
2. 양수공고: 2006년 4월 13일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광역시 광안동 1333-3433
전화: 010-9977-960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유체동산 매각공고
사건번호: 2006년 1105
1. 매각일: 2006년 4월 25일

무담보
무보증
가계·당좌·어음·할인·금전
010-3144-5830

사원 모집
54년 전통의 호남대표신문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블루부담의 짐을 추기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역할을
마음껏 펼치십시오.
모집대상
모집부서: 인원, 용사 자격
고충군, 나주군, 영광군, 주지: 0명, -일간신문경력 1년 이상인 자, -당사 인사규정의 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국어, 상식, 논문), 3차: 면접
제출서류
1. 이력서(사서부착, 연락처 명기) 1부, 2. 자기소개서(A4 1매 분량) 1부, 3. 주민등록등본/초본 2부, 4.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제출기한 및 접수처
접수기간: 2006년 4월 21일까지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단,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총무국 ☎ 062-220-0514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산행
다들카메(새마을안호)의 기
2006년 4월 13일
광주광역시 광안동 1333-3433
전화: 010-9977-9600

채용공고
(죽암 - 건축/조경/환경(기계)기술, 연구직 모집)
당사는 전남 순천시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건설 및 환경서비스 주력으로 주
택, 기계, 영농분야의 계열사를 가진 짧은 기업으로 급변 사업 다각화와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하오니 의욕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모집부서, 구분, 인원, 용사 자격
건축, 신입/경력, 0명, 1. 196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군포 또는 면제자, 2. 초대출신(건축/환경/기계) 3. 건축(신입)기사·소지자로 신입 4. 건축: 경력사원(기술인명) 특급으로 현직대리인 2년이상
조경, 경력, 0명, 1. 초대출신(조경/환경/기계) 2. 조경(신입)기사·소지자로 3년이상 경력자 3. 주민지역 근무 가능자 무대
안전, 신입/경력, 0명, 1. 초대출신 2. 신입(신입)기사·소지자로 신입 또는 3년이상 경력자
환경/기계, 연구직, 0명, 1. 대졸이상(환경, 기계/환경/기계) 2. 3년이상 경력자 3. 외국어 활용자, 기계설계기사, CAD가능자 무대
전형방법
1차(서류전형) → 2차(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3차(채용시험)
서류접수
제출처: (540-951) 전남 순천시 영향동 1437-2번지 죽암 인사팀
제출기간: 2006년 4월 20일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이력서(사서부착),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자격증 사본
접수방법: 우편 또는 e-mail(팩스 접수 불가)
e-mail: jaco2001@paran.com
\* 문의전화: (061)740-0708(이문재)
\* 홈페이지: www.jukam.co.kr
기타사항
이력서 상단에 응시분야, 연락처 가능한 전화번호, 희망연봉 기재
국가보훈대상자는 관계법에 의거 우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죽암그룹

